

생계위기 몰린 어민·상인들 “하소연 할데도 없다” 한숨

상인들 “그나마 뜰하던 밭길마저 끊겼다... 앞으로 살길 막막”
양식업체 “도매시장 거래 없고 미리 출하도... 버티기 힘들 것”

남광주시장 상인·전남 어민 목소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소식을 접한 광주·전남 수산업계 종사자들은 ‘우리가 현실이 됐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전남 어민들은 ‘생업을 접어야 할 처지가 됐다’고 하소연했고, 상인들은 ‘엿친 데 덮친 격’이라며 ‘살 길이 막막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2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소식 때문에 그나마 뜰하던 밭길마저 끊겨 시장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판매대에는 생선 몇 마리만 올라 있었고 상인들은 생선을 얼음물에 담갔다 매대에 올려놓기를 반복했다.

20년 짝 남광주시장에서 활어횟집을 운영 중인 윤봉철(46)씨는 “손님들이 여름철에는 수산물을 찾지 않는다 불가까지 올랐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까지 겹쳐 손님이 밭길이 끊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 생선을 들 어오곤 있지만 팔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허를 내뉘었다.

활어를 판매하는 김재운(60)씨도 “주변 수산업계 종사자들을 보면 적자에 허덕이다 못해 일을 그만두고 생업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평생을 업으로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절대 쉽지 않다. 수산업은 그냥 문 닫으라는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또 “수산물의 주고객층은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은 오염수 방류에 특히 민감해서 오염수 방류 발표 이후 매출액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40년간 남광주시장에서 생선을 판매해 온 천재일(75)씨는 “이렇게까지 장사가 안되는 건 처음”이라며 “바다에서 들여온 생선은 얼음에 담그면 3일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이마저도 안팔리면 내다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류 전부터 이렇게 손님이 뜰 끊기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완도 전복을 포장 판매하는 김연수(여·48)씨는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전복을 대량으로 떼어와 팔고 있는데, 가격 하락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며 “오염수가 방류되면 업종 변경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남 양식업체도 “이젠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푸념했다.

완도에서 매년 60t가량 전복을 생산하는 위장명(46)씨는 “전복 값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수까지 방류되면 전복 양식업은 거의 망한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내년엔 출하할 전복을 미리 출하하고 있다. 하지만 방류 후에는 양식업자 대부분 규모를 줄이거나 업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공식 결정·발표한 22일,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 수산시장 판매점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해상 가두리 양식을 10년째 하고 있는 박형근(51) 고흥군 어민연합회장은 “소비자들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도매시장 거래가 어려워졌다”며 “총 5ha(1만 5125평) 규모로 돌돔과 농어 100만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팔릴 때까지 마냥 사료 값만 추내고 있어 적잖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을 규탄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은 22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적극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996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통해 투기하자 일본 정부가 러시아를 성토했으며 국제사회에 협조를 호소했는데 30년만에 주체만 바뀐 채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며 “당시는 주요 강대국(G7)들이 나서 공동 대응하는 등 적극 저지했지만

지금도 유엔정부를 G7, 국제원자력기구(IAEA)까지 방류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취소하고 윤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광주·전남 시민단체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군별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하루 최대 오염수 500t ALPS 거쳐 바다로

국내외 전문가 최소 7개월 최대 10년 예측

일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해양 방류 반대 변함없다”

오염수 방류 어떻게

30년 간 133만t 방출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오염수와 방류 방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핵연료 분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필수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냉각수 공급이 끊기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려 원자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파손된 원자로에 냉각을 위한 물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쏟아붓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외부에서 붓는 물과 원전 지하에서 유입된 지하수를 말한다.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을 함유하고 있어 핵폐기물과 다르다는 지적을 내놓았고 주변국에서는 방류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133만 t 이상을 대형탱크에 나눠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담겨 있는 오염수를 정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바다로 내보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루 최대 오염수 500t가량의 ALPS 설비를 거쳐 다양한 필터에 통과시켜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사성 물질의 하나인 삼중수소는 ALPS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일본 도쿄전력은 배출 기준에 맞춰 대량의 바닷물로 희석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희석 작업 후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추가 희석을 거쳐 기준치 아래로 낮춘다는 것이다.

순조롭게 방류가 진행된다면 가정 하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전부 바다로 흘려 보내는 데에만 3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7월 최종 보고서에서 ALPS로 처리한 오염수에 100배에 달하는 해수를 섞어 희석해 방출하면 삼중수소의 농도가 1L당 1500Bq(베크렐)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바다 유입 시기

정부는 4~5년 후 유입 예상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 원전 오염수가 전남 바다까지 유입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광주·전남 시도민은 물론 피해를 우려하는 수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정부, 국내외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4~5년 뒤부터 우리나라 해역에 오염수가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국내외 전문가들은 최소 7개월에서 길게는 10년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는 등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놨다.

정부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삼중수소 확산을 예측한 결과, 오염수는 방류 4~5년 후부터 우리 관할 해역에 유입될 것으로 분석했다”며 “약 10년 뒤에는 국내 해역의 평균 농도의 약 10만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오염수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해의 연구진의 분석은 달랐다. 독일 킬대학 헬름홀츠해양연구소는 지난 2012

년 ‘태평양으로 방류된 세슘137(핵분열 부산물)의 장기 확산 모델 시뮬레이션’ 논문을 발표하고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만에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하며, 1년 내에 제주도 너머 남해안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칭화대 해양공학연구소는 지난 2021년 ‘오염수 방류 후 280일이면 한국 남해안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국립과학리뷰’지에 발표했다. 연구소는 방류 400일 이후엔 한국 전체에 삼중수소가 도달하고, 1200일 안에는 북태평양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경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달 한국해양학회가 주관한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확산에 대한 과학적 이해’ 심포지엄에서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세슘이 수심에 따라 어떻게 확산하는지 분석한 결과 표층수의 경우 10~11년이 지나 우리나라 가까이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수심 200~500m의 아표층 물도 9년이 지나야 대만 부근까지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임대 안내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고자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바랍니다.

임대시설 개요

- 주소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달마로 19(미야리 219-10)
- 면적 : 건물(369㎡), 대지(2,584㎡)
- 임대시설물 : 목축물 내 건물 및 기계·공구·비품 일체

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 상호 협의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상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신용정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농기계수리 서비스업 경영자 우대
- 제출서류 : 신분증,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방법 : 땅끝농협 총무계로 직접 방문 신청

문의사항

- 땅끝농협 총무계로 문의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80, ☎ 061-533-2470)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울포해수욕장근)

-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 445평과 210평, 도로 좋음, 평당 100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루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환경면 평산리 바닷가 집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막리 전 포함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3-1768호

본량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본량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개최목적

- 본량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3. 09. 06(수) 10:30~12:00
- 장 소 : 본량 더하기센터 2층 대강당(용진로 303)

3. 본량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개요

명칭	위치	면적	재생유형
본량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 일원	33,393천㎡ (집중추진구역 295천㎡)	특화재생

4. 기타사항

-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2023년 9월 7일(목) 18시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재생과에 서면 또는 팩스(062-960-3768)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산구 도시재생과(062-960-3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